

경기도-일본 HOYA(주) MOU

LCD용 대형 포토마스크 생산업체

경기도 평택시 소재 현곡지방산업단지 내에서 LCD용 대형 포토마스크를 생산하는 한국HOYA전자주식회사가 한국내 고객사의 사업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를 결정하고 경기도와 투자협약식을 가졌다.

경기도는 2월26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 한국HOYA전자의 이리에 사토시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10억달러를 투자해 LCD용 대형 포토마스크 생산을 위한 추가 공장을 설립하는 내용의 투자협약서(MOU)를 체결했다.

일본 HOYA사는 지난 2003년부터 경기도와 꾸준한 실무 상담과 현장 실사를 진행한 끝에 2004년 5월 31일 경기도와 투자협약서(MOA)를 체결, 2004년 9월9일 한국HOYA전자를 설립했다. 한국HOYA전자는 2005년 10월부터 생산을 개시한 이후 견실한 성장을 계속해 왔다.

한국HOYA전자에서 생산하고 있는 포토마스크는 LCD를 만들기 위한 사진 원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포토마스크의 정확도와 패턴 형성 능력에 따라 LCD 패널의 성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26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HOTA社 투자협약체결식(MOU)에서 이리에 사토시 한국HOYA전자 대표이사와 협약식을 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능이 결정되기 때문에, 액정디스플레이 기술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부분품이다.

최근 LCD 패널의 대형화 및 제조 효율의 향상을 위해 유리 기판 사이즈가 대형화되고 있으며, 유리 기판에 패턴을 전사하는 포토마스크 사이즈 역시 대형화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HOYA전자는 금번 추가투자 결정으로 패널의 대형화 추세와 더

불어 지속적인 사업 확대가 예상되는 한국의 LCD산업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높은 기술 경쟁력을 갖춘 대형 포토마스크의 안정적인 수급에 따른 국내 고객사의 경쟁력 향상과, 부품·소재 부문이 취약한 한국 LCD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김문수 도지사는 "한국HOYA전자가 보다 성공적인 사업

을 펼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리에 사토시 대표이사는 "한국HOYA전자주식회사의 추가투자 결정을 통해 LCD관련 국내 대기업과 관련기업이 밀집해 있는 경기도의 우수한 입지 여건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추가투자의 의의를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기초생활수급자 등 790가구 추가 선정

경기도 7천828가구를 대상으로 실태파악

경기도는 790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추가 선정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10일부터 50일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6개월 이상 체납 2천951가구와 전류제한기 부착·단수·도시가스 중단 1만3천193가구 등 1만6천144가구 중 7천828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등에 대한 가구별 실태를 정밀하게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보호 대상자로 선정된 790가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183가구, 보육료 지원 253가구, 모·부자기정 선정 69가구, 차상위 의료지원 51가구, 경로연금 지원 25가구 등이며, 나머지 209가구는 비수급 빈곤층 생계비, 장애수당 및 민간후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2002년부터 매년 저소득층 발굴조사를 실시,

2004년 2천30가구, 2005년 3천21가구, 2006년 404가구, 2007년 2천585가구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도 6월과 11월경 두차례에 걸쳐 한전, 건강보험공단, 상수도사업소, 도시가스회사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아 저소득층 발굴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한국의 전통문화 체험 일체감 공유

의정부시 자금동주민자치센터 국제결혼 외국인대상

국제결혼이민자 수강생들이 한복 저고리의 고름을 매느라 강사의 목소리에 귀를 쫓아 듣고 한복을 여미는 강사의 손길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하는데 여념이 없다.

의정부시 자금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한글 및 우리풍습배우기 프로그램 수강하는 국제결혼이민자에게 줄며 우리문화를 접하며 바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통문화 체험행사를 의정부지역 사회교육협의회 평생학습관에서 가졌다.

국제결혼이민자 수강생들은 한복(韓服)으로 입고, 바쁜 잘하기 등의 전통 예법(禮法), 다식(茶食)만들기, 다례(茶禮)체험 등으로 신기해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제히 물어보면서 가정주부로서의 우리의 전통문화를 하나하나 재미있게 익혔다.

한국 사람들도 때로는 모를 수 있고, 배우기 쉽지 않은 것들을 외국인들에게 가르친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뚫히며 강사는 조금이라도 더 가르치려고 서두르지 않고 조목조목 수강생을 가르쳤다.

강봉구 주민자치위원장은 외국에서 국제결혼으로 오신 외국인들이 우리의 전통문화를 조금이나마 빠르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기쁘다며, 이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일체감과 방한 등을 논의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의정부시 자금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한글 및 우리풍습배우기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국제결혼이민자에게 줄며 우리문화를 접하며 바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통문화 체험행사를 의정부지역사회교육협의회 평생학습관에서 가졌다.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기획 공모

사회문화예술교육·방과후 학교 등 2개 분야

경기문화재단이 지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와 '방과 후 학교'를 통해 저소득층 자녀의 문화예술 기회 불평등을 완화하고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활동할 참여기관이나 단체를 공모한다.

방과 후 학교를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공모 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단체로 단체 소재지 주변 1개 시·군 단위로 학급당 80시간 내외의 프로그램을 8개 초등학교 대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단체여야 한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프로그램을 우선하며 총 4개 지역 운영단체를 모집할 계획이다.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경기도민들의 문화예술체험과 참여를 통한 창조력, 이해력, 비

평역력 등을 높이고 문화예술소양 능력을 향상시키는 양질의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 우수한 교육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경기도의 지역단체(개인)도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문화재단 문화교육팀(031-231-7264~5)에 문의하면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성실히 땀 흘린 자가 성공하는 대한민국 기대"

김문수 경기도지사, 경기도-재외동포 실업인 간담회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을 맞아 성실한 자가 반드시 성공하는 대한민국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2월25일 저녁 서울 여의도 백성호텔에서 '경기도-재외동포 실업인 교류간담회'를 열어

도내 및 재외동포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절망 속에서도 땀 흘리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열리기를 기원했다.

김지사는 "오늘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께서 어려운 시절을 딛고 가장 짧은 시간에 기업을 성공시키고

대통령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었다.

취임사에서든 이 이야기를 할때 가장 박수가 컸다"며 "누구나 성실히 노력하면 가장 밑바닥에서 정상까지 오를 수 있는 대한민국이 열릴 것으로 믿는다. 경기도와 해외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결국 가장 감동스러운 것은 휴머니즘이며, 사람을 빼고 어떤 정책도 어떤 꿈도 말할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가 가장 어려울 때 꿈을 잃지 않고 성실히 땀 흘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25일 서울 백성호텔에서 열린 경기도-재외동포 실업인 교류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장애인 보장구 무료정비 실시

의정부 호원1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의정부시 호원1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2월24일 회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새봄맞이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및 장애인 보장구 무료정비를 실시했다.

회원들은 이른 아침 등산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망월사역 주변에서 쓰레기 줍기 등 환경정비를 가졌으며, 이어 의정부시장애인복지관으로 이동 장애인 보장구 전동휠체어 30대, 휠체어 및 각종 보조기구 20여대를 정비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은 내것같이 장애인 보장구를 정비하는 데 열정을 쏟았다.

김경태 회장은 올해는 회원뿐만 아니라 15개동을 순회하며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



의정부시 호원1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2월24일 회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새봄맞이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및 장애인 보장구 무료정비를 실시했다.

이라며, 시에서도 수리비로 예산을 지원해 주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어려운 가정 취학아동 결연식

청소년지도위원-저소득층 아동 결연

의정부시 장암동은 2월22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취학아동 7명과 청소년지도위원 17명이 멘티-멘토로 결연식을 가졌다.

이날 후원 결연식에는 책가방, 신발주머니, 공책, 연필깎기 등 신학기 학용품들 롯데마트, 삼성홈플러스, 오성문구, 광명교회 등에서 후원해 주어 어려운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었다.

이번 행사는 저소득 취학아동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청소년지도위원과 저소득 취학아동이 멘티-멘토 결연을 통해 학교생활에 적응, 문제 사전예방, 경제적 후원 등을 하기로 했다.

유은희 장암동장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멘티-멘토 활동을 통해 아동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토뉴스

한국쿠제공장 준공식



한국 쿠제 주식회사가 2월21일 오후 4시 아산국가산업단지 내 평택 포승지구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임대지구에서 반도체 제조공정용 각종 부품 제조를 위한 생산 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한국농어인협회 의정부지부 적사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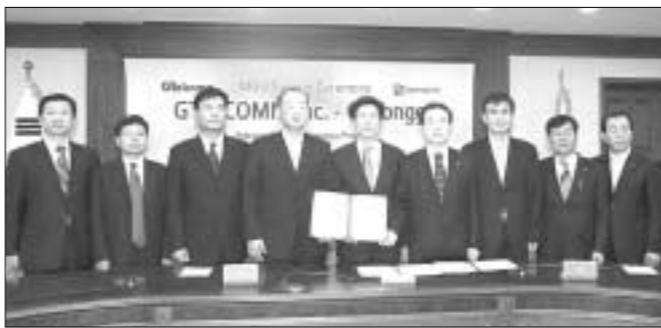
한국농어인협회 의정부지부는 2월21일 소망농이에서 청각장애인, 가족, 수화통역사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떡국과 부럼도 깨어 먹으며 웃음도 함께 즐겼다. 특히 어성용 지부장은 회원들의 활짝 웃음을 보니 너무 즐겁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이 자주 모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봉급결제 기부약정식



2월20일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김항자 복지정책과 직인대표, 신창기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최석현 도 공무원 노동조합위원장(왼쪽부터)이 참석한 가운데 봉급결제 기부약정식을 하고 있다.

경기도-GTELCOMM(지텔콤) MOU 체결



2월20일 도청상황실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 Mike Kwom(마이크 권) CEO, park(캐빈박), 이재현 Gtelcomm Korea 사장, 장태현 경제투자관리실장, 최홍철 성남시 부시장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MOU를 가졌다.

수도권 주요 건설현장 해빙기 안전점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시민단체 합동점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청장 한기선)은 겨울철 반복되는 동결 융해로 인한 지반 침하, 낙석·산사태 등으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위험이 평소보다 높은 해빙기에 대비하여 절·성토고가 높은 도로, 철도 등 취약건설현장을 대상으로 3개반을 구성해 2월28일부터 3월19일까지 15일간 민·관 합동으로 부설시공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종합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지반침하, 낙석·산사태 등이 우려되는 도로, 철도, 택지개발, 건축물 등 수도권 45개 대형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자체직원, 민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18명이 나선다. 특히 자체 발주 공사에 대하여는

작년에 이어 환경부 점검은 물론 금년부터는 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과도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잦은 점검에 따른 공사관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중점점검을 피하여 합동으로 점검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빙기 안전사고는 주로 절개지 붕괴, 지하굴착시설의 매몰, 지반침하와 함께 산사태가 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붕괴 등 위험예상지역은 긴급 보수·보강 등 철저한 안전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지속적으로 안전관리 체계 강화 등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부패와 전쟁 청렴도 향상 특별쇄신교육

경기도 소방본부, 365일 수시암행감찰 실시

경기도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최진중)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도내 전관서의 민원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특별쇄신교육을 실시했다. 그동안 소방본부는 청렴도 꼴찌의 불명예를 씻기 위해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된 사람은 본부와 소방

검점 부서에서 배제하는 '원아웃 제'를 시행하고, 소관관 비리 등 부패행위 예방을 위한 감찰 업무만을 담당하는 '부패 예방 기동팀'을 구성, 365일 수시 암행감찰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소방본부 특별정신교육과 소방관서장 문책성 인사단행까지 조직의 전반적인 쇄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평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